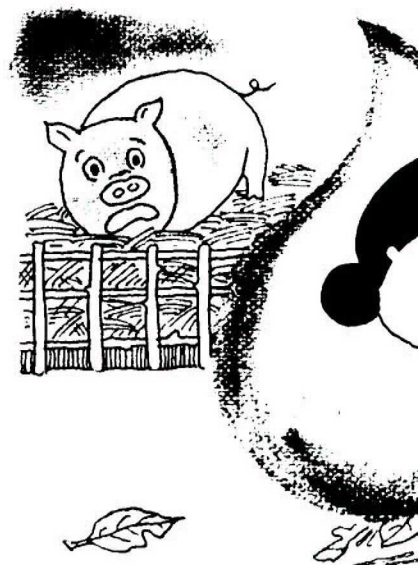


돼지우리에 불낸 아이



황 남 덕
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



인류의 조상 중에서 맨 먼저 불을 사용했다는 베이징 원인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40만년을 인간은 불과 인연을 맺어 왔다.

음식을 부드럽고 맛있게 익혀 주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고 어둠을 밝혀주는 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맙고 편리한 것이다. 그러나 방심과 부주의가 함께 할 때 불은 갑작스럽고 큰 재앙이 되어 우리를 위협한다.

불을 볼 때마다 나는 무섭고 떨리던 어린 날의 기억으로 몸이 도사려짐을 어쩔 수가 없다.

지금은 주부가 되어 불과 땀해야 땀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지만 불에 관한 한 나는 통 자신이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을 해야만 한다.

내가 어렸을 적엔 겨울마다 유난스레 길고 추웠다.

국민 학교조차도 지금처럼 집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먼 길을 걸어가야 했다. 옷도 양말도 따뜻하지가 못했던 시절,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얇게 닳은 고무신 바닥으로 스며들던 냉기였다. 더구나 손발이 얼 정도로 힘겹게 도착한 학교마저 흙바닥에 영성하게 엮은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 앉은뱅이 책상을 놓아 두었던 탓에 시간이 지나면 방석이 축축하니 젖어와서 공부를 마칠 때 쬐이면 엉덩이까지 얼어서 감각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손바닥 크기에 알맞은 반들반들한 돌을 아침밥 짓는 아궁이에 넣어 두었다가, 학교 갈 때면 꺼내어 여러 겹으로 싸서 이손저손 옮겨 가며 들고가는 이른 바 휴대용 난로를 가지고 다녔다.

그것은 찬바람에 바알갈게 언

짜강의 불에 대면 따듯한 우정이 되었고, 평소 마음에 새겨두었던 남학생에게 슬며시 건네줄 땀 연연한 교류를 낳아 주기도 했다. 그래서 아침마다 불에 구운 돌 찹기기를 책가방 찹기기보다 더 신경을 쓰곤 했다.

그날은 낮게 드리운 구름이 땅에 닿을 듯 했고 음산한 바람이 넓은 마당에 이리저리 가랑잎을 굴리며 눈까지 내릴 채비를 하고 있었다.

저녁 준비를 위해 먼 시장까지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자 나는 “돌을 구워 두었다가 어머니의 언 손을 녹여 드려야겠다”는 기특한 착상을 하고 아궁이를 들여다 보았지만 싸늘한 재 뿐이었다. 생각 끝에 두툼하니 짙으로 겨울채비를 한 돼지우리 옆에서 가랑잎이며 나무 부스러기들을 모아 그 위에 돌을 엮고 성냥을 그어 대었다.



“이 풀이 따뜻해져 어머니를 드리면 어머니는 고맙다시며 내 불에 입맞춤을 해 주실거야”

나는 성냥팔이 소녀처럼 타고 있는 불 속에서 아름다운 환상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휘 불더니 불덩이 몇 개가 돼지우리로 옮겨 불어 타기 시작했다.

나는 와락 겁이 나 집안 식구나 이웃 사람들을 부를 생각도 못하고 내 작은 손으로 허우적대었지만 불가항력이었다. 바짝 마른 짚들은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춤추듯 여기저기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몇 마리의 돼지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살려 달라고 죽는 소리를 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방문 앞으로 다가 가자 돼지 우는 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나오시는 중이었다. 나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할머니, 불 났어요”하곤 대문 밖으로 달아나 버렸다.

이웃 사람들이 물러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될수록 집에서 멀리 떠나야 된다는 생각에 자꾸만 걸었다.

겨울 해는 일찍 떨어지고 무섭고 떨리고, 어두운 밤 속에 죄인이 된 나만 땡그마니 남았다.

눈물이 얼룩진 채로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았지만 결국 돌아갈 곳은 집 밖에 없었다.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어귀에 숨어 있자니 나를 찾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하느님 같았고 천사 같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소리였지만 나는 섣뜻 그 앞으로 나설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거의 울 듯 나를 불렀고 나는 울음보를 터뜨리며 어머니에게로 달려 나갔다. 어머니 등에 얹혀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어머니가 자랑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휴대용 난로는 엄두도 못내는 내게 어머니는 아무 말없이 돌을 구워 챙겨 주셨다.

그 이후 나는 “돼지우리에 불 낸 아이”가 되었고 언니나 동생은 자기들이 불리한 경우만 생기면 괴로웠던 과거를 들추어 내 기를 꺾곤 했다.

그 불로 우리집은 돼지 몇 마리가 죽는, 그 당시로선 큰 손해를 입긴 했지만 나는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의 사랑이 감격스러웠고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다.

자라면서 가끔 어머니와 의견

충돌이 생겨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유순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다.

그 어머니가 이젠 예순 여덟의 할머니가 되셨고 나는 그때의 어머니가 되어 두 아이를 사랑으로 기르려 애쓰고 있다.

철부지였던 국민학교 일학년 때의 커다란 실수는 나의 뇌리에 확연히 박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조심성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어 한편으로 고맙기(?)조차 하다.

그런데, 크신 사랑으로 나를 키워 주셨던 어머니께서 팔을 다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먼 거리를 핑계삼아 곧 찾아뵙지를 못했다.

많이 다치신 건 아니고 팔목을 조금 빼었을 뿐이라는 말씀에 걱정조차 않고 지내다가 몇 달이 지나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서야 친정으로 달려갔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통닭집은 잔잔하고 정 많으신 성품과 뛰어난 물김치맛 때문에, 젊은 아줌마들의 애교있는 웃음이 가득한 가게들이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많은 편이었다.

주름 많으신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두 손 잡아주실 어머니를 그려보며 가게로 들어서니 낯선 아주머니가 일을 하고 계셨다.

할머니 어디 계시느냐고 물으니 다치신 팔이며 허리가 완전히 낫지 않아 병원에 가셨다는 것이었다.

조금 다치셨다던 말씀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어머니는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는 것이었다.

나는 콧날이 시큰해지며 울음덩어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와 참기가 힘들었다.

아이들을 먼저 집으로 보낸 후 어머니를 기다렸다.

한참 있다가 돌아오신 어머니는 훨씬 야위시고 많이 늙으신 모습이였다. 나는 어머니를 붙잡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엉엉 울어버렸다.

“애야, 괜찮다. 나이가 드니까 낫는 게 좀 더딜 뿐이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어머니 이제 제발 좀 쉬세요. 왜 고생을 사서 하시고 그러세요.”

“요즘은 일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있으니 고생될 것도 없어. 그래도 손님들이 나를 보고 찾아오니 고마워서 나와 앉아라도 있어야지.”

열심히 일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일 하나 이루시겠다는 어머니께서 쉬실 수 있는 날은 언제나 될지…….

“애야, 너는 절대로 가스 켜 놓고 다른 일 하지 마라. 잠시 한눈 팔면 그게 큰 화가 될 수도 있어.” 하시며 어머니는 팔 다치신 애길 해주셨다.

일요일 아침 일찍 놀러간다는 단체손님의 주문에 맞추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스를 켜고 기름 냄비를 얹어 놓으신 후 기름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깜빡 잠이 드셨다 한다.

하루 너덧시간의 수면으로 만족하셔야 하는 어머니의 형편을 생각하면 단 몇 분간의 시간이 아까와 눈을 붙이셨다고 어찌 잠을 탓할 수 있을까.

그런데 누가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가게 안은 불이 불기 시작해 연기가 자욱하고 깜짝 놀라신 어머니는 급히 나오시다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져서 다치셨다는 것이다.

옆집 아주머니가 일찍 깨었다가 타는 냄새에 놀라 밖에 있는 가스통의 콕크부터 잠그고 이웃들을 깨워 소방서에 연락을 하고 어머니를 구해 냈기 망정이지 정말 큰 일을 당할 뻔 하셨다는 것이었다.

불타고 그을은 가게는 말끔히 새 단장이 되었지만 다치신 몸은 완전히 낫질 않아 여지껏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는 어머니.

하루에도 몇 번씩 커다란 연탄을 갈아 넣으시는 일이 너무 힘들신 것 같아 3년전 가스 시설을 해 드렸더니 편해서 일할 재미가 절로 난다며 좋아하시던 어머니께서 잠시의 부주의로 큰 화를 당하신 것이다.

두 번의 화재로 나는 어디선가 조금만 연기가 나도 불이 난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전까지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게 돼 버렸다. 산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 것도 여러 번이다.

재작년엔가 바로 이웃에 있는 태광산업에서 큰 불이 나 시커먼 연기가 넓은 하늘을 온통 가리던 끔찍한 광경도 직접 보았다. 그 큰 건물들이 전혀 손쓸 수도 없이 차례로 불타는 걸 보던 안타까움이라니.

마침 화재보험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별 손해를 입지 않고 빠른 시일에 산뜻한 새 건물을

지어 다시 힘차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게 다행스럽다. 일터를 떠나 이리저리 흩어졌던 어린 소녀들이 다시 모여 재잘거리며 일하러 오고 가는 모습도 대견스럽고 한편으론 애뜻하기도 하다.

또, 가난하여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이 된 집에 세 아이들만 남겨두고 어머니가 포장마차 장사를 하러 간 사이에, 촛불을 켜 채로 잠들었던 세 남매가 모두 불에 타 죽은 가슴 아픈 기사도 읽었다.

이처럼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무서운 화재는 특히 겨울철이면 거의 날마다 몇 건씩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다. 그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겨운 사연들이 있으랴.

그러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만이 최선의 예방책이 아닐까 싶다.

큰 건물에서 규정대로 시설을 하지 않아 화재를 당하는 걸 볼 때 답답하다 못해 화까지 난다. 불행이 나만은 지나쳐 가리라는 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다.

잠시의 부주의, 조그만 방심이 크고 작은 화재의 원인임을 감안하여 미리미리 살피고 고쳐서 화재없는 사회를 이룩해야겠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불을 다루는 우리 주부들은 특히 화재 예방의 첩병이 되어야 한다. 내 가정을 화재로부터 지키는 일이 곧 사회와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일임을 알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